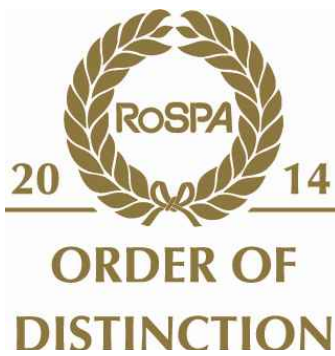


Victrex, 영국 산업안전보건상 수상

빅트렉스(Victrex)는 환경 안전성을 향상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립 재해예방협회(RoSPA)의 2014년 산업안전보건상(Order of Distinction Award)을 수상했다고 5월29일 발표했다.

빅트렉스의 SHE 관리자 사이먼 에반스(Simon Evans)는 “빅트렉스는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빅트렉스가 견고한 위험 관리 문화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안전관리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노력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RoSPA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부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직장 내 사고와 건강악화 예방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보이는 관련기업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자들은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기업과 조직들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직원 참여 등을 포함해 산업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고려해 심사하고 있으며, 빅트렉스는 17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빅트렉스 관계자는 “빅트렉스는 3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에 새로운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향상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보건, 안전, 환경 보호의 노력을 지속·증진시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슬기 기자>

<화학저널 2014/05/29>